

지난해 119 신고 1252만 건...2.6초에 한번씩 전화벨 울려

소방청,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총 신고 1252만1553건...전년보다 3.7% ↑ 건조한 날씨에 화재 신고 늘어나...46만건 집중호우 내린 8월 구조·구급 신고 최다

지난 한 해 전국 119신고 접수건 125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초에 한 번꼴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52만155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07만5555건 대비 44만5998건(3.7%)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으로는 3만4305건으로 2.6초 당 한 번씩 119전화벨이 울린 셈이다.

현장 출동 관련 신고 유형 중에서는 구급출동이 330만2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안전 84만4037건 ▲구조출동 76만 5283건 ▲화재출동 46만3517건 순이다.
이 가운데 화재 신고건수는 2021년 37만 5409건보다 8만8108건(23.5%)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소방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화재 위험이 높아졌고, 대구지역 산림화재 신고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형 재난으로 신고 접수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구급 신고의 경우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가장 많았다. ▲구급 32만6698건 ▲구조 14만 11건 등이다. 소방청은 집중 호우로 구조 및

급·배수 등 안전조치 신고가 급증했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에 따라 야외·여가 활동이 늘어나 신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자연재해 발생 시 비상소집을 통해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신고 접수대를 최대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출동하지 않은 신고 유형 중에서는 의료 안내 및 민원상담이 394만8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응답 133만3987건 ▲오접속 81만8403건 ▲유관기관 공동대응 11만 6428건 ▲기타 92만8974건 등이다.
이들 유형 가운데서는 무응답·오접속 등 유형 신고건수만 전년 대비 각 27.2%, 15.7% 감소했는데, 소방청은 119신고접수 요

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역걸기' 등 예방적 조치 행의 결과로 분석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분은 유관기관 공동대응 유형으로 2021년 8만5195건에 비해 3만1233건(36.7%) 증가했다.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 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접수체계 및 상황관리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특히, 시도 경계를 넘는 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전파,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앞두고 '추모의 발걸음'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참사 20주기를 앞둔 13일 오전 한 시민이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설치된 '기억공간 추모의 벽' 앞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추모하고 있다.

자택 불 질러 숨지게 한 20대도 사망...사건 종결 수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자택에 불을 질러 함께 사는 어머니까지 숨지게 한 20대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4층 건물 내 3층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유력 추정되는 A(29)씨가 숨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지른 불로 신체 곳곳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A씨는 전문심리치료기관 상담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준비는 마쳤다'고 전화했다.
이후 상담사로부터 소식을 접한 지역경찰이 A씨가 사는 건물을 수색하던 중 3층 자택에서 불길기 치솟았다. 이 불로 A씨의 어머니(63·여)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내 70㎡

와 가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1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직전 상담사와의 통화 내용 등으로 미뤄, A씨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계획이다.
김재환기자

이재명 소환조사 마무리...‘대장동’ 남은 수사는

추 2차 조사까지 마쳐...영장 청구 전망

검찰이 대장동 배임 등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사건의 분류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사업 수익 추적 및 로비 의혹 등 아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28일과 이달 10일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위례 사건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각각 12시간 반,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두 번의 조사 모두 위례-대장동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물어왔다고 한다. 각각 150쪽,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결재한 자료까지 제시하며 압박했고,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입장은 1차 조사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언론에 공개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에 담겨 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시의 내부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갔다고 해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측근들이 지분을 약속 받았다는 전화동인 1호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언론 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재조사를 마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조사에서 보인 태도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 관측이다.

이 의혹의 최고 뒷선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반부패수사1부에선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측근인 최우항(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 275억원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이사와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김씨를 여러 차례 불러 대장동 개발 배당금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이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갈래인 '로비 의혹'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로비 수사의 핵심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광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 6명이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씩 받기로 했다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던 광전 의원은 지난 8일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최근 광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